

광주·전남 청년고용, 전국 평균 미달... 회복세 거북이걸음

■ 한국은행 보고서

광주·전남지역 청년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회복세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가 24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청년 고용 부진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고용률 수치를 연령 별로 분석하면 15~29세 청년 고용률이 유일하게 전국보다 낮았다.

또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청년 고용률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광주·전남지역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면서 전국 청년 고용률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성장 잠재력 하락 등 탓”

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광주·전남지역의 낮은 청년고용률 원인으로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 하락', '낮은 수준의 일자리 질', '성장과 고용 간 연결고리 약화', '낮은 수준의 정부 여건' 등이 부진한 청년 고용의 원인으로 꼽았다.

먼저 광주·전남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둔화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경제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을 이끄

는 중요요소생산을 추정해 본 결과 광주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전남은 정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평균 임금수준도 타지역보다 낮고 실직 위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규직과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 사이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뚜렷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무엇보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광주·전남에 턱 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조사됐다.

지역 청년들은 대부분 교육·정보통신·과학 기술 등 고부가가치형 서비스를 선호하지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청년 선호 점수를 도출해본 결과 광주는 특별·광역시 가운데 중위그룹에 속하고, 전남은 전국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남은 모든 권역에서 청년 선호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청년층의 지역 정착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결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거·교통·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면에서 전남은 광주와 달리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은행 조사팀은 광주·전남지역의 청년고용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미래형 자동차·신소재·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단기적으로 지역 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청년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청년 실업자 중 대졸 이상 고학력자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상대적으로 광주와 전남 동부에서 높은 편”이라며 “글로벌 30대학 선정과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내 교육 수준을 높이고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정착과 취업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용일기자



광양제철소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 교육’으로 더 안전한 제철소 만들기

광양제철소(소장 이동렬)가 조업 현장을 각각 방문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난 22일부터 실시, 사고 없는 안전한 제철소 만들기에 나섰다.

광양제철소는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조업 현장의 안전 교육 니즈를 반영하고 실제 업무와 일치하는 실습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앞서, 이동렬 광양제철소장은 취임사에서 ‘원칙과 절차’ 기반의 전원참여 자율안전문화의 내재화 달성을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일상 속 잠재위험을 발굴 개선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활동을 실천하여 ‘안전해서 행복한 제철소’를 만들자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이 같은 광양제철소의 안전경영 방침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진행되는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은 안전방재그룹 소속 전문강사단이 직접 현장 부서를 방문해 진행될 계획이다. 그동안, 현장 관리감독자의 주도 아래 안전 교육이 실시돼 왔는데 찾아가는 안전교육으로 이들 감독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에게 더욱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조업 부서별로 작업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부서별 환경에 맞춰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서별로 신청한 과목 위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현장 직원들이 즉시 실무에 적용 가능한 안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는 ▲안전 기본 ▲안전 절차 ▲고위험 작업 등 3가지 대분류 중 각 분류에 속한 안전 지침과 절차 및 법령에 대한 이론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론 교육이 끝난 뒤에는 강사와의 토론형 Q&A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광주폴리’ 야간조명·음성 해설서비스 설치...불거리 제공

광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건축물 ‘광주폴리’가 야간에도 빛을 밝히며 불거리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광주폴리’ 5개 작품에 경관조명을 설치했으며 31개 작품에 음성해설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관조명이 설치된 작품은 충장동에 설치된 작품명 ‘99칸’과 ‘광주사랑방’ ‘유동성조절’ ‘광주사랑방’과 케이팝(K-POP)거리 있는 ‘투표’ 등 5작품이다.

‘99칸’과 ‘광주사랑방’은 각각 충장치안센터 앞,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버스승강장 옆에 있으며 겨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조명이 설치됐다.

작품 ‘투표’에는 스토리보드와 함께 케이팝 거리와 연계한 체험관광 콘텐츠가 강화됐다.

또 광주폴리 31개 작품에는 ‘큐피킵’앱과 폴리 안내판에 부착된 큐알(QR)코드를 활용해 24시간 음성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포츠, 릴스 등의 콘텐츠를 올려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광주시는 오는 30일 광주비엔날레에서 문화·예술·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광주 구도심 활성화 건축물 광주폴리 작품 ‘99칸’. (사진=광주시청 제공)

‘폴리시민협의회’ 회의를 열어 광주폴리 추진 상황과 폴리 5차 돌레길 구상·작품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다양한 경관조명으로 조성된 광주폴리가 ‘인증샷’ 명소가 되

길 기대한다”며 “광주폴리 제5차를 통해 그동안의 폴리가 연결되면 구도심이 과거·현재·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신활력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 단합해야” 신당에 우회적 쓴소리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총선을 앞둔 분열과 신당 창당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김 지사는 2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치적 진로를 묻는 질문에 “시기상조”라고 밝힌 뒤 대선 신당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신당이 생겨나고 있다”며 “다당제, 양당제 중 뭐가 좋느냐는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그건 평상시, 즉 비선거철에 하는 얘기고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민주당이 분열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뜻을 함께 모아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야당이 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밝혔다.

특히 “신당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도를 보면 상당히 낮은 거 같다”며 “(지금) 민주당을 위주로 단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8대, 19대 총선에서 잇따라 승리한 뒤 재선 전남지사로 도정을 이끌고 있다.

김희면기자

한국인본진흥재단
Korea Human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녹님께서 재탄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았습니다.

| 연도 | 보험료 납부액 (원) | 건강보험 혜택액 (원) | 배율 |
|-------|-------------|--------------|------|
| 2016년 | 240,833 | 125,531 | 1.7배 |
| 2017년 | 79,147 | 48,103 | 2.1배 |
| 2018년 | 26,697 | 183,961 | 2.7배 |
| 2021년 | - | - | 5.3배 |

보건복지부 | Aswell 국민건강보험 | 홈페이지 129 |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